2. 생육초기에 비해 생육후기에 광합성의 능력은 현저히 감퇴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그 정도는 전광량의 15～20%하에서 재배된 인삼잎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2년근에서는 생육후기에 호흡량이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4년근에서는 생육후기에 대체로 호흡량이 증가되었고 엽록소의 증감도 호흡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9. 고려인삼의 種子發芽에 關한 硏究

(I) 溫度가 開匣種子의 胚生長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농과대학농학과) 曺 在星, 姜 熙慶*

1. 종숙종자의 직파시 전체배율은 59.12%로서 관행개갑처리구의 평균배율 64.70%에 비해 약간 낮으나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2. 개갑종자를 0°, 5° 및 10℃에 치상하여 배율을 각각 조사하였던바 10℃에서의 배신장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5℃였으며 0℃에서의 배신장율이 가장 낮았다.

3. 개갑종자의 온도처리에 따르는 발근율은 10℃처리구에서 현저히 높고 빨랐으며 다음이 5℃구였고 0℃에 치상한 종자에서는 130일까지도 전혀 발근되지 않았다.

10. 인삼의 出芽 및 生育特性에 關한 生育調節物質의 영향

(한국인삼연초연구소) 정 찬문*, 안 상득
권 우생

生長調節物質인 GA, Kinetin 및 2, 4－D를 濃度別로 處理하여 日